

수원 삼성, 등지 트지 22년 만에 '공식 매장' 오픈

수원 경체성 곳곳에 담아 포토존 구성
‘논매치데이’ 전용 상품·이벤트 예고

프로축구 K리그1 수원 삼성이 빅버드(수원 월드컵경기장)에 등지를 트지 22년 만에 ‘블루윙즈 오피셜 스토어’를 오픈한다.

수원은 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 위치한 공식 매장에서 이준 대표이사, 오동석 단장, 이민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최국현 본부장, 이나영 푸마코리아 대표, 최승균 디아이에프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매장 오픈 기념 테이프커팅식’을 진행했다.

‘블루윙즈 오피셜 스토어’는 오는 3일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3 16라운드 수원 삼성과 수원FC의 ‘수원대비’에서 오픈하는 수원의 ‘블루윙즈 오피셜 스토어’ 매장 내부 모습.



오는 3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3 16라운드 수원 삼성과 수원FC의 ‘수원대비’에서 오픈하는 수원의 ‘블루윙즈 오피셜 스토어’ 매장 내부 모습.

사진=유창현 기자

도입했으며 매장 내부에 탈의실이 마련돼 있다. 또 현장에서 유니폼 마킹을 할 수 있도록 마킹 기기 3대를 도입했다.

오피셜 스토어는 6월 한 달 간 경기 수원의 홈경기 때만 운영된다. 구단은 해당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한 뒤 7월부터는 상설 매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은 홈경기가 없는 날 고객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논매치데이’ 전용 상품을 출시한다. 특히 ‘블루ID’로 명칭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통해 팬들이 본인만의 특색있는 푸마 의류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 수원 대표는 “장단 이후 간절한 바람이었던 공식 매장이 오픈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이를 계기로 빅버드가 수원 팬들의 자부심이 가득한 특별한 곳이 되기를 반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오는 7월에는 대형 디스플레이 3기 를 도입해 구단의 다양한 영상들을 상영할 계획이다.

수원은 매장을 찾는 팬들을 위한 구매 편의성도 크게 증대했다고 전했다. 팬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스마트 웨이팅 시스템을



1일 의정부시체육회관에서 진행된 ‘제52회 전국소년체전 입상자 장학금 수여식’에서 송명호 의정부시체육회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임상우 의정부시태권도협회장(앞줄 오른쪽 두번째), 장학금을 전달 받은 학생선수 및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의정부시태권도협, 전국소년체전 입상자에 장학금 수여

태권도 꿈나무 5명에게 장학금 전달

의정부시태권도협회가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태권도 꿈나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의정부시태권도협회는 1일 의정부시체육회관에서 송명호 의정부시체육회장, 임상우 의정부시태권도협회장, 의정부시태권도협회 장학위원회의 김진숙 블랙큐브 대표, 이광호 의정부 G-스포츠클럽 코치 및 전국소년체전 출전 선수 5명 등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특히 여자 13세 이하부 36kg급 이은선(의정

부시포츠클럽·의정부 호원초)은 경기도선수단에 대회 첫 금메달을 선사하면서 금메달을 끊었다. 이밖에 여자 16세 이하부 58kg급 이은미(의정부 호원중)와 여자 16세 이하부 40kg급 최희랑, 42kg급 이에서(이상 호원초)는 나란히 3위에 입상했고 54kg급 김제연(호원초)은 8강에 올랐다.

김진숙 블랙큐브 대표 등 의정부시태권도협회를 후원하는 장학위원회는 이 선수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수선수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선수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숙 블랙큐브 대표 등 의정부시태권도협회를 후원하는 장학위원회는 이 선수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수선수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선수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유창현 기자

고양시청 최한주, 문곡서상천배 역도경기 남자 67kg급 3관왕

최한주(고양시청)가 ‘제82회 문곡서상천배 역도경기대회’에서 시즌 첫 전국대회 3관왕에 올랐다.

최한주는 1일 충남 서천군 서천군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첫날 남자 67kg급 인상 2차 시기에서 118kg을 성공해 임창윤(제주특별자치도·110kg)과 김영준(충청북도 청·80kg)을 따돌

고위기에서

유창현 기자



31일 오후(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클럽 아틀레티코 미트레 훈련장에서 에콰도르와의 16강전을 하루 앞둔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김지수, 이승준 등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콰도르와 4년 만에 리턴 매치 “이번엔 8강 제물이다”

대한민국 U20
월드컵 대표팀

6월 2일 오전 6시 에콰도르와 8강 티켓 두고 맞대결

선수들 체력 회복 관건… 박승호 조기 귀국으로 전력 손실 ‘악재’

대한민국 20세 이하(U-20) 축구 대표팀이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8강으로 가는 길목에서 ‘남미의 복병’ 에콰도르와 단판 승부를 펼친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대표팀은 2일 오전 6시(한국시간)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스타디움에서 에콰도르와 2023 FIFA U-20 월드컵 16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2019년 대회 4강에서 에콰도르와 맞붙었다. 4년 전 폴란드에서 열린 U-20 월드컵 당시 정정용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던 한국은 이강인(마르요카)의 패스를 받은 최준(부산 아이파크)의 결승골에 힘입어 에콰도르를 1-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 오른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1-3으로 패하며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쳤지만 역사 를 새로 썼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 F조에서 프랑스를 2-1

로 잡고 온두라스와 갑비아를 상대로 각각 2-2, 0-0 무승부를 거둔 한국은 1승 2무, 승점 5점으로 김비아(2승 2무·승점 7점)에 이어 2위로 U-20 월드컵 3회 연속 16강에 진출했다.

FIFA 주관 남자 대회 사상 첫 결승 진출과 준우승을 이룬 2019년의 영광 재현에 도전하는 한국은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16강전 결전지인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에 도착했다.

한국은 당초 29일 오후 3시에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로 출발 할 예정이었으나 전세기�이 이상이 생겨 30일 오전 10시로 지연됐다.

김 감독은 선수단의 피로도를 걱정했다.

김 감독은 “어차피 하루 휴식은 필요했다. 출발 전 쉬느냐, 도착 후 쉬느냐의 문제였다”면서도 “도착해서 쉬면 더 좋은 부분이 있었다. 아무래도 하루 늦게 오다 보니 피로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빨리 회복해서 16강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의 16강 상대인 에콰도르는 16강 무대를 밟은 팀 중 가장 해볼 만한 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은 조별리그 성적에 따라 16강전에서 우루과이나 브라질과 만날 수도 있었지만 이들을 피하고 에콰도르와 붙게 된 것이好奇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본선에 출전한 24개국 중 조별리그 3경기에서 11골을 터뜨려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에콰도르를 만만히 볼 수만은 없다. 이 중 9골은 최약체로 평가되는 피지를 상대로 뽑아낸 골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게다가 2007년생 공격형 미드필더 유망주 키엔드리 파에스와 2004년생 공격수 저스틴 키에로(이상 인데펜디엔테 델 바예) 등은 경계 할 선수로 꼽힌다.

온두라스와의 조별리그 2차전(2-2 무)에서 골을 넣은 뒤 발목 골절상을 입은 공격수 박승호(인천 유나이티드)가 더 뛰지 못한 채 결국 조기 귀국길에 오르며 전력에 손실을 보게 된 건 김은중호로선 아쉬운 부분이다.

유창현 기자

수원 삼성vs수원FC, 승리 절실한 수원 형제의 두번째 ‘맞대결’

프로축구 K리그1 유일한 지역대비 ‘수원대비’에서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수원 삼성과 수원FC가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펼친다.

수원과 수원FC는 오는 3일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3 16라운드에서 맞붙는다.

두 팀 모두 최근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분위기 반전의 재물로 삼으려 한다.

수원은 김병수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12라운드부터 1승 3패를 달리고 있다. K리그 1 구단 중 유일하게 한 자릿수 승점을 기록하고 있는 수원은 2승 2무 11패, 승점 8점으로 최하위(12위)에서 좀처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룰리치, 김경중 등의 부상으로 완전체가 아닌 수원은 안병준이 최근 3경기 연속 골을 터트리며 물오른 골감각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 위안이다.

최전방 공격수인 안병준이 살아나면서 이기제의 날카로운 왼발도 함께 빛을 내고 있다. 게다가 부상으로 인해 한 달 간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아코스티가 지난 15라운

수비 불안정한 양 팀, 골잔치 예상 평균 3골 기록… 홈팀이 모두 승리

드 제주 유나이티드전에서 복귀하면서 오른쪽 측면의 경쟁력도 높아졌다.

최근 3경기에서 모두 득점에 성공하면서 탈꼴찌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 수원은 높은 실점이 골칫거리다. 수원은 15경기에서 26골을 내주며 수원FC(실점 29골) 다음으로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4연패 수렁에 빠진 수원FC는 한 때 리그 6위에 자리했지만 현재 4승 3무 8패, 승점 15점으로 9위까지 내려앉았다.

수원FC는 최근 4경기에서 단 2골을 넣는 동안 무려 12골을 내줬다. 수비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시즌 막강한 화력을 자랑했던 수원FC의 공격력은 이승우의 부진과 함께 줄어들고 있다. 수원FC의 공격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승우는 이번 시즌 12경기를 소화하면서 1골 1도움으로 침묵하고 있다.

외국인 공격수 라스가 14경기 6골 3도움으로 분전하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의 지원 사격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3월 진행된 양 팀의 시즌 첫 번째 ‘수원대비’에서는 수원FC가 수원을 2-1로 꺾고 시즌 첫 승을 올렸다.

K리그 통산 14번째 수원대비를 치르는 양팀의 경기는 2021년 12월 이후 치러진 6번의 맞대결에서 한 번의 무승부도 없이 경기당 평균 3골의 공격축구를 선보이며 홈팀이 모두 승리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수비가 불안정한 두 팀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에서 골잔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홈팀의 승리 공식이 계속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K리그2에서는 나란히 8승을 기록 한 FC안양과 부천FC1995가 3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펼치며 같은 날 성남 FC는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충남 아산과 원정경기를 치른다.

또 시즌 첫 패배를 당한 김포FC는 4일 김포솔라구장에서 충북 청주FC와 홈에서 맞붙고 안산 그리너스FC는 휴식을 취한다.

유창현 기자